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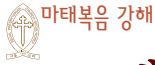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레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예수님의 12제자 빌립

(마 10:2-4)

빌립은 베드로와는 반대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한편으론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1. 그의 이름

빌립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lover of horse)'으로 매우 강인하고,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리 보편적이지 않은 이방인적 이름이었습니다.

2. 그의 회심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단 한 마디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이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신중한 빌립의 기질을 알고계신 예수님은 단호한 한 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것을 아셨습니다.

3. 그의 성격과 기질

빌립은 신중한 반면 때로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중하면서도 부정적인 성격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보다 무리들에게 먹일 떡값을 꼼꼼하게 계산하였습니다(요 6장).

4. 그의 사역과 죽음

복음서에서 빌립의 행적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사역 무대는 소아시아로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래와 같은 지역들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은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러시아와 불란서까지 가서 전도를 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5. 그의 삶이 남긴 세 가지 교훈들

첫째, 빌립에게는 주위에 참으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빌립은 비록 의심이 생겨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질문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빌립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빌립과 같이 의심과 회의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고 영원합니다.

빌립과 같은 결단해야 할 때 결단 하므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Philip, Among Twelve Disciples of Jesus

(Matt. 10:2-4)

Philip, on the contrary to Peter, was cautious and careful, while he was able to carry out the role of leader.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His name

The meaning of Philip referred to 'lover of horse' indicated the nuance of very strong, active, and energetic name. Nevertheless, it was not universal for Jewish people but aliens.

2. His conversion

Jesus spoke, "Follow me", and Philip made up his mind to follow Jesus. At that moment, even though Philip seemed to decide on impulse, Jesus who understood his careful temperament knew that his decisive word was enough to move his mind.

3. His character and temperament

Though Philip was cautious, he often had a negative view of things. His cautious and negative character was seen in the incident of five bread and two fish. He carefully calculated the price of bread to feed the people (John 6).

4. His mission and death

We could not find Philip's deeds in the New Testament Gospels. His assignment was in Laodicea and Hierapolis-pamukkale in Asia Minor. Many people who have received the Gospel from Philip in such cities evangelized people from Russia to France and their traces were discovered there. On the point of proclaiming the Gospels in Hierapolis, Philip was arrested and died a martyr on the hill of Hierapolis.

5. Three morals that Philip left in his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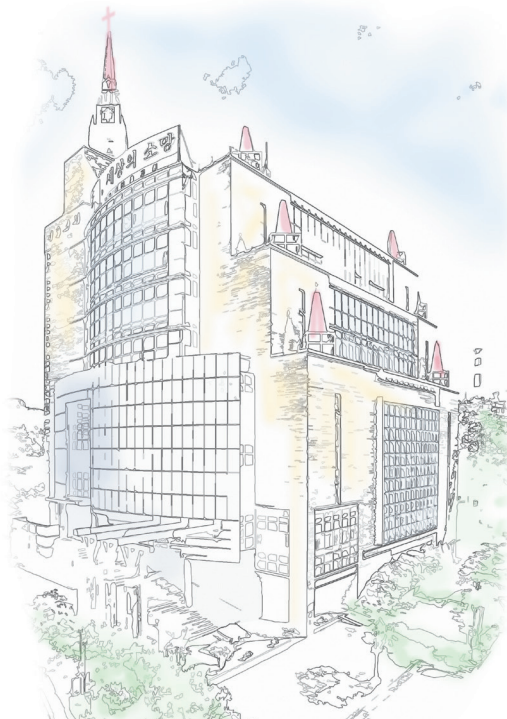
First, there were many good friends of faith around him.

Second, When Philip began to doubt, he didn't leave Jesus, but stayed and kept asking questions.

Third, Philip carefully made decisions when he needed.

My beloved Christians,

Faith is a deci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fe is that we must deeply know Jesus Christ, hold him, and rely on him. In this respect, we may have a time to doubt about something like Philip. However, truth is in the bible and it is eternal. By making a decision like Philip,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live your life and be used by Jesus as much as you lik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터키 성지 순례, 24일 출발

- 9월 24일(화)~10월 3일(목) -

2013년 9월 24일(화)부터 10월 3일(목)까지 9박 10일 간 다녀오게 될 터키 성지순례단(단장 박노철 목사)은 총 72명이 참여하여 소아시아 7교회와 밧모섬 그리고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지를 중심으로 생생한 성경의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풍성

한 사람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더욱 하나가 되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대와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순례의 시간을 통해,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들이 풍성하게 쌓여가기를 소망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3)

(문 102) 왕상 9:22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지 아니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린 일이 있습니까?

(답) 왕상 9:22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처럼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었지 노예로 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상 5:13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 3만 명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왕상5:14-18) 이처럼 짐꾼과 돌을 뜨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외의 가나안 백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들은 성전건축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쓰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사역하는 노예라기보다는 자원하여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상 5:13과 9:22사이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건축 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노동자를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여 남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솔로몬은 노예로 역군을 삼았습니다. 그는 이들 역군을 예루살렘을 방어하는데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왕궁과 밀로와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는데 동원시켰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케 했습니다. 아마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속의 일을 감독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지만 노예처럼 부린 일이 있으므로 왕상 9:22과 5:13은 상호 보충되는 말씀이지 충돌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13년 성경암송대회

예선 : 10월 13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

본선 : 10월 18일(금) 오후 7시, 602호 / 야고보서 전장

2013년 성경암송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10월13일(주) 각 교회학교별 예선을 거쳐 10월18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암송범위는 야고보서 1-5장(전장)이다.

글로 읽는 것은 15%가 기억에 남고, 시청각으로 보는 것은 25%가 그리고 손으로 쓴 것은 40%가 남고 암송한 것은 100%가 남는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성경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2013 사명자 대회

- 10월 6일(주)~11월 24일(주) 50일간 -



사명자 대회는...

I.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려고

역사는 본래 하나님의 경륜의 집행 장소다. 20년 전 과거사를 미화시켜 인간 예찬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겸손히 인정하자는 것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자기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경고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할 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한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권함을 받지 아니 하리라(눅16:31)하셨다. 이것은 역사의 실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것보다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II.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키 위해서

우리는 그때에 목자 잃은 양처럼 미래에 대한 두

려움과 현실의 슬픔을 안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렸다. 인간 삶을 통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섭리의 실현과정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인간 행적을 드러내어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와 약함과 불순종과 불충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III. 겸허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언약의 연속성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세상의 일들은 그것이 먼 곳에 있든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다 나와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인연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부정하라. 우리는 역사에서 그 멀고 또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겪어온 일들 즉 가슴 벅찬 일, 가슴 메어지도록 아팠던 일, 감격에 소리치고 비애에 땅을 치던 일들, 축복에 찬송하고 환난에 도움 찾아 손 뻗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를 회상하여 우리의 벗은 모습과 천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지난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회개를 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행적을 찬양하고 자랑하면 거기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불변성, 연속성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비전(사명)을 오늘도 계속 감당하고 내일도 잊지 않고 좇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나가면 하나님의 더 크신 복이 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편집부)

2013 성지순례

미리 보는 성지순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데 교회



에베소 교회

북한인권한국연합총회 출범

정의 실천을 위하여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 지난 2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가지므로 그 출범을 알리며 이종운 목사님을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이종운 목사님은 '정의 실천을 위하여'란 제하의 설교를 하며 "교회가 탈북난민과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교회연합측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시점에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 출범하는 당위성을 토론했다. (편집자 주)

왜 우리는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을 창립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7,80년대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지만 지금은 북한 인권회복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의 창설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동포들은 지난 68년 동안 혹독한 인권유린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 왔는데 이제 다시 20대의 젊은 수령을 모시게 되었으니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50년 이상을 더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 도대체 북한주민들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동족이 겪는 참혹한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뿐만 아니다. 우리가 이 단체를 시작하는 이유는 야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보왕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북한동포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북한동포를 김씨왕조 체제에서 해방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고 북한에 굴종함으로써 분단을 영속화시키고 인권유린을 끝없이 방치하는 것은 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북한이 개혁개방, 북핵폐기, 인권개선의 길로 가도록 분명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을 통해 다음의 일들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을 염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한데 모아 북한인권운동을 크게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특별히 "기독교북한인권기금"을 만들어 북한인권운동이 크게 발전되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인권법 제정운동에 앞장서고자 한다. 창립 직후부터 전국 각 시군구에 지부를 결성하여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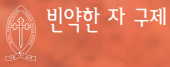
셋째, 탈북난민의 강제복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과 국내의 복송반대운동을 크게 강화하고자 한다. 끝내 복송을 중단시켜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한다.

넷째, 한국국민이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종북좌파 세력을 무력화하여 이들에 의해 더 이상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다섯째, 교회내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시국관을 갖도록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빈약한 자 구제

살리닷 수술기금 마련 자선음악회

7살 된 한 소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자 자랑이었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소녀, 살리닷! 하지만 살리닷의 손에서 벤젠이 폭발하는 순간 그녀의 삶이 추락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온 몸이 오그라들고 뼈마디 마디와 피부는 수축되었습니다. 지금 살리닷에게는 6도 화상의 흔적과 상처받은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와 2013 서울교회 비전트립팀을 카자흐스탄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간의 사고로 가혹한 현실에 갇힌 살리닷을 구해주세요. 살리닷이 다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리닷이 꿈꿀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 일시: 2013년 9월 28일(토) 오후 5시 30분~8시
- 장소: 베델하우스(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604-3)
- 주관: 서울교회 의료선교팀,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 청년부



화상사고 전의 살리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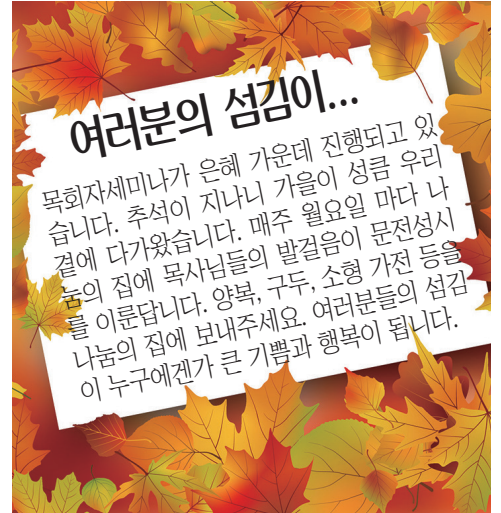


화상사고 후의 살리닷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1독 : 9교구 이남성 집사, 11교구 정미자 집사, 12교구 이인선 권사, 13교구 김미성 권사, 13교구 홍건표 권사, 16교구 이상호2 집사
- 2독 : 12교구 박명석 권사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5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례 모임에서 설교한다.
- 주간식당봉사 : 베드로 선교회(9.22) 바울선교회(9.29)
- 금주의 식사 : 강승용 집사 서경애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전도학교 입학 감사하며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부덕 성도
(마가다락부)

저는 마가다락부 회원 성 부부사이가 좋아지고 더불어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부덕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65 또한 주일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고, 2주에 배후 703호에 모여 마가다락부회원들과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마가다락부 선생님의 권유로 전도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전도학교에서 하나님말씀 열심히 배워서 전도도 하고 마가다락부 회원님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배려하며 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전도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다닌후로는 마음과 몸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참고 또 참아 부부싸움을 안하니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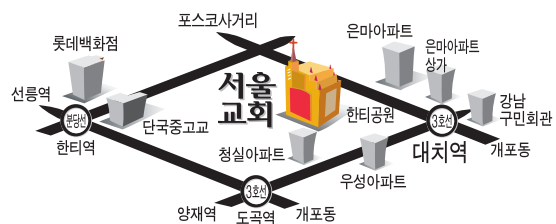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24(화)~10/3(목)까지 진행되는 터키성지순례를 통해 모든 순례자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2. 10월 6일 주일에 발대식을 갖는 2013년 사명자 대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로 인해 영혼구원의 대잔치가 되도록
3. 9월 28일(토) 오후 5시에 베델하우스에서 열리는 자선 음악회를 통해 온 몸이 녹아져 내린 소녀 살리닷의 후원이 풍성하게 이뤄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